

2차시.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실제(2)

- 형태에 관한 것
- 띄어쓰기



목 차



- ▶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- ▶ 띄어쓰기

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- ▶ **체언**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[제4장 제14항]

: 바비, 바블, 바베, 밥도, 밤만 ...



- ▶ **용언**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음[제4장 제15항]

: 익따, 일꼬, 일거, 일그니 ...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▶ 너머지다? 넘어지다?, 드러나다? 들어나다?

-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▶ 이것은 꽃이오? 꽃이요?, 어서 오십시오? 오십시요?

이것은 꽃이 아니오? 아니요?

-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

➔ ‘-요’ 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

‘오’ 로 적음

예 이것은 꽃이오. / 어서 오십시오. / 이것은 꽃이 아니오.

-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‘이요’는 ‘이요’로 적음

예 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 붓이요, 또 저것은 먹이다.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▶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'-요'는 '-요'로 적음[제4장 제17항]

- 예**
- 맑아요 (← 맑아 + 요)
 - 좋지요(← 좋지 + 요)
 - 인내하리요(← 인내하리 + 요)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▶ 깊이? 기피?, 졸음? 조름?

• 어간에 '-이' 나 '-음/-ㅁ' 이 붙어 명사로 된 것

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음[제4장 제19항]

예 • 깊이 ➔ '-이' 가 붙어 명사로 됨

• 졸음 ➔ '-음' 이 붙어 명사로 됨

• 얇 ➔ '-ㅁ' 이 붙어 명사로 됨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▶ 이틀 + 날 ➡ 이튿날? 이튿날? 술 + 가락 ➡ 술가락? 순가락?

• [제4장 4절, 29항] 끝소리가 'ㄹ' 인 말과 딱 말이 어울릴 때

➡ 'ㄹ' 소리가 'ㄷ' 소리로 나는 것은 'ㄷ' 으로 적음

예

• 이틀 + 날 ➡ 이튿날

• 술 + 가락 ➡ 술가락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문제

다음 중 바른 표기를 골라 ○ 를 표시하십시오.

- 초점(○), 좃점()
- 바다가(), 바닷가(○)
- 나뭇가지(), 나뭇가지(○)
- 아래니(), 아랫니(○)
- 나뭇잎(), 나뭇잎(○)
- 코병(), 콧병(○)
- 제사날(), 제삿날(○)
- 예사일(), 예삿일(○)



1. 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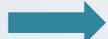
- ▶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음[제4장 제30항]
 - **합성 명사가 고유어만**으로 되거나, **고유어와 한자어**로 되고 **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,**

뒷말 첫소리가
된소리



예 바닷가, 아랫집, 모깃불,
아랫방, 콧병, 햇수

뒷말 첫소리
'ㄴ, ㅁ'앞에서
'ㄴ'소리 덧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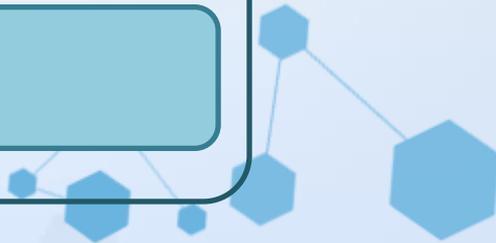


예 아랫니, 빗물,
제삿날, 양치물

뒷말 첫소리
모음 앞에서
'ㄴㄴ'소리 덧남



예 뒷일, 나뭇잎,
예삿일, 훗일





2. 띄어쓰기



2. 띄어쓰기

▶ 띄어쓰기는 왜 필요한가?

나그네를 좋아해요.

나 그네를 좋아해요.

나그네를 좋아해요.

나물좀주세요.

나 물 좀 주세요.

나물 좀 주세요.



2. 띄어쓰기

▶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함[제1장 제2항]

•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

▶ [제5장 제41항] 꽃마저, 꽃처럼

▶ 거기도, 거기는

• 의존 명사는 띄어 씀[제5장 제42항]

(독립성은 없으나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

독립된 단어로 취급)

▶ 아는 것이 많다.

▶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.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나는 그 물을 마실수밖에 없었어요.
➔ 마실 **V** 수**밖에**(조사)
- 나는 그 물을밖에서 마셨어요.
➔ 물을 **V** **밖에서**(명사)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너는너대로나는나대로 서로의 길을 가자.
➔ 너는 **V** **너대로** **V** 나는 **V** **나대로**(조사)
- 말하는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.
➔ 말하는 **V** **대로**(의존 명사)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나도너만큼 과일을 잘 먹을 수 있어.
➔ 나도 **V** 너만큼(조사)
- 과일은 먹을수있는만큼만 먹읍시다.
➔ 먹을 수 있는 **V** 만큼만(의존 명사)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그 사건을 잊은지오래다.
→ **잊은 지(의존 명사) 오래다.**
-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모르겠다.
→ **일어났는지(연결 어미) 모르겠다.**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영희가 말하는바를 이해하겠다.
→ **말하는 바**(의존 명사)
- 영희의 진술은 사실인바 더 묻지 않겠다.
→ **사실인바**(-ㄴ 바 : 연결 어미)



2. 띄어쓰기

- ▶ **어미**는 단어가 아니므로 **띄어쓰지 않음**
 - 그 사건을 **잇은 지** 오래다.
 - ▶ **'지'** : <의존 명사>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
 - 그 사건이 언제 **일어났는지** 모르겠다.
 - ▶ **'-는지'** : <연결 어미>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어미



2. 띄어쓰기

- ▶ **어미**는 단어가 아니므로 **띄어쓰지 않음**
 - 영희가 **말하는 바**를 이해하겠다.
 - ▶ **'바'** : <의존 명사>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
 - 영희의 진술은 **사실인바** 더 묻지 않겠다.
 - ▶ **'-인바'** : <연결 어미>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어미



2. 띄어쓰기



의존 명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더라도

의존 명사로서가 아니라 조사, 어미 등으로 쓰일 경우를

잘 구별하여 띄어쓰기를 해야 함



2. 띄어쓰기

문제

다음 각각을 바르게 띄어쓰기 하십시오.

- 차한잔 ➔ **차 한 잔**
- 자동차 열두대 ➔ **자동차 열두 대**
- 한시오십분오십초 ➔ **한시 오십분 오십초**
- 육십층 ➔ **육십층**
- 43개 ➔ **43개**
- 900원 ➔ **900원**



2. 띄어쓰기

- ▶ **단위**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씀[제5장 제43항]
 - 차 한 **V** 잔
 - 자동차 열두 **V** 대
- ▶ 다만, **순서**를 나타내는 경우와 **숫자와 어울리어 쓰일 때는** 붙여 쓸 수 있음
 - 한시 오십분 오십초
 - 육십층
 - 43개
 - 900원



2. 띄어쓰기

- ▶ **성과 이름, 성과 호** 등은 붙여 쓰고,
이에 덧붙는 **호칭어, 관직명** 등은 띄어 씀[제5장 제48항]

- 김삿벌 **V** 씨
_____ **V** 군
_____ **V** 선생
_____ **V** 장군

- ▶ 다만, 성과 이름, 성과 호를 구분할 필요가
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음

- 남궁억 / 남궁 억
- 황보지봉(皇甫芝峰) / 황보 지봉





3. 정리



3. 정리

형태와 관련된 맞춤법

- ▶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
- ▶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음
- ▶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 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,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함

예 넘어지다, 드러나다 등



3. 정리

- ▶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는 ‘요’로
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‘오’로 적음

예 어서 오십시오 등

- ▶ 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/-ㅁ’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
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음

예 줄음, 있음 등

- ▶ 합성 명사가 고유어만으로 되거나,
고유어와 한자어로 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
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음

예 바닷가, 아랫니, 뒷일, 햇수, 제삿날, 훗일 등



3. 정리

띄어쓰기

▶ 문장의 각 **단어**는 **띄어쓰**를 원칙으로 함

예

- 나는 그 물을 **밖에서** 마셨어요.
-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었다.
- 과일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읍시다.
- 그 사건을 잊은 지 오래다.
- 영희가 말하는 **반**를 이해하겠다.

